

환황해권 시대, 충남 서해안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

김경태 | 충남발전연구원 문화디자인연구부 책임연구원

‘서해안 시대!’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럽게 문장 서두에 붙는 말이다. 그럼 서해안 시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시작은 경제쪽에서 나온 것 같다. 1980년대 후반 대중국과의 교역으로 늘어난 무역량 때문에 생긴 말로 예전엔 중국과 수교를 안했기 때문에 서해안이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무역물동이 물리는 부산쪽에서만 발전이 있었는데 남동권의 과밀화에 따른 국토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의 균형 개발 정책이 추진되면서 서해안이 경제 개발의 핵심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중국과의 수교로 수출입이 늘어난 관계로 서해안의 항구들이 개발되고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서해안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서해안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물류가 온다는 것은 사람도 같이 온다는 것이다. 이에 관광산업의 측면에서도 중국인 관광객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충남 서해안의 경우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을 통해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동해안으로 향하던 발길이 서해안으로 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서해안의 매력에 빠져드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충남의 관광객수도 2012년 전체 92,999,092명으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충남 서해안에 인접해 있는 7개시군(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의 2012년 관광객수는 62,009,454명으로 충남 전체의 66.7%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관광의 행태를 보면 하절기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 위주의 단순한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여름 성수기 집중현상으로 교통체증, 수용력 부족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켜 충남 서해안을 찾는 관광객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간 국민관광의 주요한 행태로 자리 잡았으나, 해수욕장 중심의 관광행태, 하계 및 동해안 편중 현상 등의 특성으로 다양한 성공사례가 창출되지 못하였다.¹⁾

또한 서해안을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들의 해양관광활동은 해수욕, 해변경관 감상, 수산물 구매 시식, 일부 계층의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등 단편적 활동에 치중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해안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요트, 모터보트 등 해양레저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즐기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그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과 함께 주 5일 근무

1) 김영준, 「해양 관광개발 사례 연구: 국내외 관광개발 사례 연구(II)」, 한국문화연구원, 2007.

특집_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발전전략과 대응방안

제 확산 및 5일제 수업시행 등으로 여가시간이 증가하면서 해양관광 레저에 대한 수요는 확대될 것²⁾이라는 것이다.

이는 여가문화가 성숙한 미국, 유럽 등에서 육상관광의 대안으로 해양관광 레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세계 해양관광객수는 2010년 7.4억명에서 2020년 11.2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해양레저스포츠 수요도 200년 157만 명에서 2003년 239만 명, 2010년에서 554만 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해양경찰백서, 2011).

이런 추세는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서 보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전후한 시기에 해양레저산업이 꽃을 피웠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3만 달러를 전후한 시기에 급성장하는 것에서 유추해 보면 우리나라도 자연스러운 단계로 해양레저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해양레저산업의 대표적인 산업인 요트 관광레저는 체험형 관광시장의 급성장, 새로운 여가 트렌드와 중앙부처의 마리나 정책과 맞물려 국가의 전략적 동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제적 문화적 인프라 조성 등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연안지역에 인접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마리나 조성사업,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해양관광개발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³⁾하고 있어 과잉투자과 중복투자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 충남 서해안 관광활성화에 적합한 해양관광의 형태는 무엇일까? 먼저 해양관광의 개념부터 알아보자. 해양관광(marine tourism)은 공간적으로 해안선에 인접한 육지, 바다, 연안, 해안, 해역 등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으로 연구자에 따라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⁴⁾ 여기에 해양관광(marine tourism)은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을 의미하므로 개념 정의는 동기, 공간, 활동 측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양관광(marine tourism)이란 “육상관광과는 다른 바다와 관련된 관광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변, 해상, 해중, 해저 등 해양에서 이루어지거나 해양과 연관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해양관광의 유형은 관광시장과 관광자원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관광시장 측면에서는 해양의존형과 해양연관형으로, 관광자원 측면에서는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으로 대별할 수 있다. 관광시장 측면에서 해양의존형이란 해양과 직접 연관되는 형태로서 스포츠형, 휴양형, 유람형으로 재구분되며, 해양연관형이란 해양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활동유형을 의미한다.⁵⁾

다음으로 충남 서해안과 관련된 대표적인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조3,472억원을 투입하는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이 있다. 이 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충남, 경기, 전북, 전남

2) 관계부처 합동, 「해양관광 레저 활성화 방안」, 2011.11.

3) 국토해양부,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8.

4) 김동주, 이은간, 이동렬, 「서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 전략」, 한국은행 목포본부, 2011.

5)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안)」, 2011, p.189

3. 환황해권 시대, 충남 서해안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

등 서해안 4개 道, 20개 시·군(9,269 km²)을 대상으로 지난 2008년부터 10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충남의 경우 7개 시군(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을 대상으로 24개 사업(거점 2, 연계 3, 전략 19)이 계획되어 있다.

2011년에 수립된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에서는 시·도 관광권과 더불어 5+2 광역경제권을 관광권역으로 수용하고 초광역 관광벨트 설정으로 계획권역을 기능적으로 연계·보완하였으며, 해양관광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해양관광도시 지정 및 육성, 해양관광자원의 개발 및 이용활성화, 수상관광레저스포츠 기반조성, 크루즈관광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이고 권역별 계획에서 충남은 전통문화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충남 서해안 지역을 국제휴양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 계획한 '제5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2012~2016)'에서는 전국민이 찾는 '국민관광', 모두가 이용하고 향유하는 '복지관광', 글로벌 관광명소가 자라인 '휴양관광', 구석구석 균형성장하는 '산업관광'을 목표로 잡고 공간적으로 5개 관광권(해양도서, 내포문화, 역사온천, 백제금강, 녹색유곡)으로 나눠 개발을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다. 권역별로 보면 서해안은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을



〈그림 1〉 서해안 관광벨트개발계획 종합구상도

특집_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발전전략과 대응방안

포함하는 '해양도시 관광권'은 서해안 해양 관광거점과 관광 레저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 휴양관광지역으로 개발하고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홍성군을 포함하는 '내포문화 관광권'은 내포문화권의 인물, 종교, 민속자원과 연관관광자원이 연계하는 역사 문화관광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계획 기간 동안 투자비는 총 1조964억원으로 관광지 개발에 7천265억원, 핵심 전략사업 1천821억원, 전략 추진사업 380억원 관광 진흥사업에 1천498억원 등이다. 위의 계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충남 서해안 관광개발 유형은 해안 의존형에서의 휴양형이고 해양 연관형으로는 내포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해양문화관광형이라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계획들은 계획되고 잘 추진되고 충남 서해안 관광은 활성화 될 것인가? 아쉽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먼저 충남은 내포 시대 개막과 환황해권 시대를 가속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광 개선'이라는 칼을 빼 들었지만, 인프라 확충, 관광자원 구축, 예산 조달 등 앞으로 해야 할 숙제가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5차 충남 관광개발 계획 자료를 보면 최근 충남 관광을 꺼리는 이유로 교통시설(접근성 중대) 미흡, 인프라 시설테마파크, 카지노, 주차장) 부족 등이 조사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확보는 충남 지역 재정을 고려하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관광개발 사업의 예산 투자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또한 민간자본 유치에 위한 지방 정부의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방문객 중심의 관광시설 및 서비스시설 조성이 요구된다. 특히 중국관광객들이 보고, 즐기고,



〈그림 2〉 초광역 관광벨트 구상도



〈그림 3〉 제5차 충남관광개발계획 계획도

3. 환황해권 시대, 충남 서해안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

먹고,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 식당시설, 쇼핑시설, 안내시설, 중국어 가이드 육성 등의 관광수용시설 정비가 필요하다. 쇼핑시설의 경우 면세점의 유치나 관광시장 조성 등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충남 서해안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단순한 해수욕장 위주의 관광행태에서 벗어나 해양레저관광 시설의 조성이 필요하다. 스포츠형 관광레저 활동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옥외 관광레저활동이 주요 트렌드로 정착되고 있다.⁶⁾ 향후 관광레저 활동 변화 전망은 W B C(도보, 자전거, 캠핑) 등의 활동이 증가할 전망이고 전통적 레저활동은 세분화와 복합 이용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며, 또한 수상과 복합 레저 활동의 증가가 예상되는데,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수상레저 활동 유형은 요트, 고무보트, 수상스키, 패러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레드 등 15개 종목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트렌드 변화와 신종 기구가 확산되어 다양한 수상관광레저 활동을 즐기고 있으며, 장비의 다양화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0년 수상관광레저 활동 인구수는 사업장 이용자는 477만명, 개인 이용자는 77만 등 554만 명으로 집계되고⁷⁾ 있어 서해안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시설의 고급화와 상품화를 통해 차별화 전략을 추진해야된다. 또한 충남 서해안 관광자원의 최대 강점인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관광지 조성이 필요하다. 갯벌, 사구, 철새 등의 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에서 여기에 상품화를 위해 생태숙박시설, 친환경음식, 환경관광상품 등의 개발을 통한 지역소득창출과 연결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관광개발은 지역주민 주도의 관광개발을 통해 충남 서해안 관광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지역민에 의해 계획, 조성, 운영되는 관광지 조성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해양관광 레저 활성화 방안」, 2011.
 국토해양부, 「해양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8.
 국토해양부, 「마리나산업 육성대책」, 2011.
 김동주, 이은간, 이동렬, 「서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 전략」, 한국은행 목포본부, 2011.
 김영준, 「해양 관광개발 사례 연구 : 국내외 관광개발 사례 연구(II)」,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김윤영, 김영준, 「요트관광레저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정승규, 김구, 「제주지역의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2012.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2011.
 문화체육관광부, 「2011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2.
 해양경찰청, 「해양백서」, 2011.

6) 김윤영, 김영준, 「요트관광레저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7) 해양경찰청, 「해양백서」, 2011.